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애플, 중국에서 환경중심 기업 1위에 선정



물류정책·산업동향

1. 상하이 양산항, 세계 최대 완전무인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장
2. 머스크, 세계 무역 경기 회복을 부정적으로 평가
3. 미국 주요 물류기업들 연휴 물량 폭증에 진땀
4. 베트남, 아세안 물류시장 점유율 제고 위해 중국과 철도운송 추진

명사 스피치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역과 물류의 융합, 물류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구축이 선행
돼야 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중심이 돼 전문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해 신
기술 개발과 프로세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한진현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2017. 12. 18. / 아시아경제)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애플, 중국에서 환경중심 기업 1위에 선정

중국의 환경중심 기업 점수 및 순위

(단위: 100점 기준)

자료 : <http://www.supplychaindigital.com>

- 중국의 NGO인 IPE(Institute of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공공 및 환경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환경중심 기업 순위에 따르면 애플(Apple)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중심 기업순위는 중국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사의 공급사슬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산업에 걸쳐 약 250개 브랜드의 환경성과에 대한 순위를 나타냄
- 환경성과는 '대응성(Responsiveness 및 투명성(Transparency)', '규정 준수(Compliance) 및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s)', '에너지 절약(Energy Conservation) 및 배출 감소(Emissions Reduction)'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평가함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애플(Apple)은 총 82.5점, 델(Dell)은 81점을 획득했으며,
 - 리바이스(Levi's)는 76.5점으로 섬유 업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함

참고자료 : <http://www.supplychaindigital.com>, 2017.10.17.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물류정책 · 산업동향

상하이 양산항, 세계 최대 완전무인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장

- 2017년 12월 11일, 중국 SIPG(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와 ZPMC(Shanghai Zhenhua Heavy Industry)는 공동으로 상하이 양산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완전무인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인 상하이 양산 4단계 자동화터미널(이하, 양산항 4단계)을 개장함
 - 양산항 4단계는 총 길이 2,350m의 7개 선석(7만 톤급 2개, 5만 톤급 5개)을 가지고 있으며, 2.2백만㎡의 면적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완전무인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임
 - 최근 연간 처리량 4백만 TEU 규모의 1단계를 먼저 개장했으며, 이후 완전 개장 시 총 6.3백만 TEU를 처리할 것이라고 함
- 양산항 4단계는 터미널운영시스템과 장비제어시스템 등 두 개의 코어시스템 모두 중국에서 개발한 최초의 완전무인자동화 터미널임
 - 터미널운영시스템은 SIPG에서, 장비제어시스템은 ZPMC에서 개발함
 - 먼저 개장된 1단계는 10대의 자동 STS(Ship-To-Shore) 크레인과 40대의 ASC(Automated Stacking Cranes), 50대의 AGV(Automated Guide Vehicle)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전 개장 시 총 26대의 STS 크레인과 120대의 ASC, 130대의 AGV가 운영될 것이라고 함
 - 3가지 장비 모두 ZPMC에서 개발했으며, ASC의 경우 TMEIC의 자동제어시스템을 채용함
 - AGV는 완충 시 12시간 운영이 가능한 배터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배터리의 충전 및 교환을 위한 자동 배터리충전시스템도 도입함(충전은 2시간, 교환은 6분 필요)
- ZPMC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인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에 지속적으로 자동화 장비를 납품하고 있음
 - ZPMC는 중국 최초의 무인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인 샤먼항 Yuanhai 터미널과 최근 개장한 칭다오항 QQCTN 터미널에 자동화 장비를 납품했음
 - 또한 현재 준비 중인 이탈리아 바도항, 아랍 에미리트 칼리파항, 중국 당산항 등에도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할 예정임

■ 참고자료 : World Cargo News, World's largest fully automated terminal opens, 2017.12.11.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머스크, 세계 무역 경기 회복을 부정적으로 평가

-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는 올해 상승세를 유지하던 컨테이너 운임이 최근 들어 하락 반전함에 따라 세계 무역 경기 회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음
 - 머스크 남아시아 사업부의 스티브 펠더 이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가 2017년 3분기 들어 또다시 운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 국제 무역에서 해상운송에 의한 무역의 비중은 90%가 넘기 때문에 해운산업이 세계 경제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음. 펠더 이사는 최근 운임의 하방압력을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함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4.2%에서 내년에는 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출위주에서 내수위주로의 중국 경제정책 기조 전환으로 세계 무역시장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드류리(Drewry) 역시 공급과잉 지속으로 인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2017년 15%에서 2018년 1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 Grou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위 해운선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내년의 아시아-유럽간 운임은 올해보다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음
 -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2018년 컨테이너선 공급 증가율을 수요 증가율 4.5% 보다 높은 5.5%로 전망함
 - 즉 2018년에도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함
- 반면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 따르면 항공화물 운송시장은 수년간의 불황 이후 최근에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
 - 이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항공 물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올해 태평양항로와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상품 및 서비스 수요가 5-6% 증가하면서 전세계 무역량 역시 2015-2016년 이어진 슬럼프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내년 공급과잉 현상의 변화에 따라 고객과의 운임 협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편 머스크는 인도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인도 무역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은 올해 3분기 10% 증가했음. 또한 인도 수출 입 시장은 2017년 3분기까지 7.7% 성장했음
 - 2017년 상반기 컨테이너 화물 성장이 다소 침체된 것을 감안하면 2017년 전체 성장률은 두 자릿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4분기 성장 수준이 중요하며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참고자료 : bloomberg.com, 2017.12.11.



미국 주요 물류기업들 연휴 물량 폭증에 진땀

- UPS, DHL 등 미국의 주요 물류기업들은 밀려드는 연휴 시즌 물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물류기업들의 물량 폭증 탓에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대형 기업들과 더불어 주요 패션 소매업체인 ZARA, Yoox 등도 배송지연을 겪고 있는 실정임
 - UPS 관계자는 현재 밀려드는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동안 일시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작년 한해 미국 물류업체들이 배송한 포장물(package)은 약 7만 1천 2백만 개였으며, 올해 예상 판매량은 이보다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작년보다 약 4천만 개 이상의 포장물이 추가되는 것과 같은 수준임
-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소비자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물류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후 연휴기간동안 인력 보충 및 배송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 DHL의 경우 약 6천명의 계절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며,
 - UPS는 올 연휴 시즌동안 9만 5천명, Amazon은 12만 명을 추가로 고용한 상태임
- UPS가 평소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포장물은 약 1천 9백만 개 정도이지만,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에는 이보다 2배가량 많은 물량과 서류작업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DHL 관계자는 올 연휴 성수기 기간 동안 배송 물량이 전년 대비 약 26%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배송시장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 추후 증가하는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드론(drone)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됨
-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이 급속도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물류기업들은 매년 사상 최고 수준의 물량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특히 올해는 예기치 못한 물량 폭증으로 물류기업들이 모든 주문량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 2017.12.19.

이기열 전문연구원

051-797-4670, kylee@kmi.re.kr

베트남, 아세안 물류시장 점유율 제고 위해 중국과 철도운송 추진

- 베트남은 아세안 물류시장 내 점유율 제고 방안으로 최근 중국과 신규 철도운송 루트를 개발했으며, 타 운송수단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1월 베트남의 국영철도기업(Vietnam Railways)과 중국 철도당국(China Railways)은 베트남 북부지역에 위치한 하노이의 비엔(Vien)역과 중국 장시성 난창(nanchang)에 위치한 황강(Huanggang)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운송을 시작했음
 - 이는 베트남과 중국을 연결하는 첫 번째 컨테이너 운송이며 소요시간은 약 4일로 15일이 소요되는 해상운송과 비교해 볼 때 소요시간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철도기업과 중국 철도당국은 주 1회 시범운송을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주 3회 운송으로 운송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하노이-난창 노선을 기반으로 양국 간 철도운송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중국 간 철도운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세안 물류시장의 점유율을 늘리려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국경운송 활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말레이시아 물류기업이 투자했으나 현지 업체로 알려진 OTL(Overland Total Logistics JSC)는 도로, 철도를 이용한 국경 간 운송서비스 증가추세에 따라 국경운송 거점을 위한 허브 개발 및 해상과 철도, 육상을 연계한 복합운송 개발 등 시장 점유율 제고를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중국 난닝과 베트남 하노이 노선 간 전자제품 및 하이테크 제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중국의 ZYL(Zhenyang Logistics Group)은 국경을 통과하는 전자제품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경지역에 물류센터를 개발하여 철도운송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지역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
- 향후 베트남-중국 간 철도운송에 대한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베트남 철도당국은 철도네트워크 확대 및 물류시설 개발 등 신규 물류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중국 간 철도운송의 주요 화물은 Foxconn, Cannon, 삼성, LG 등 글로벌 전자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혼다, 도요타, GM 등 글로벌 자동차기업의 부품 및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물이 주요 운송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철도청은 이를 위해 북부지역의 주요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 중에 있으며 운송 및 통관시간 단축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에 ICD 개발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http://english.vietnamnet.vn>, 2017.12.18.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